

CONTENTS

교재의 사용법	010P
기출문제 풀이 Part 1	019P
기출문제 풀이 Part 2	159P

지문 목차 _ Part 1

Day 1 _ 020P

[현대시+수필] 2022.11 [18~23] '초가 / 거산호 2 / 담초'
[현대소설] 2020.09 [42~45] '자서전들 쓰십시다'
[고전시가] 2025.11 [32~34] '갑민가 / 녹양방초 언덕에~'

Day 2 _ 028P

[고전소설] 2021.12 [31~33] '최고운전'
[현대소설] 2018.09 [43~45] '눈이 오면'
[현대시] 2023.11 [31~34] '채전 / 음지의 꽃'

Day 3 _ 034P

[극문학+현대소설] 2017.09 [21~24] '독 짓는 늙은이'
[고전소설] 2019.09 [26~28] '홍길동전'
[현대시] 2024.06 [31~34] '맹세 / 봄'

Day 4 _ 042P

[고전시가+수필] 2022.06 [22~27] '유객 / 율리유곡 / 조어삼매'
[고전소설] 2017.06 [43~45] '최척전'
[현대소설] 2023.09 [28~31] '크리스마스 캐럴 5'

Day 5 _ 050P

[현대시+수필] 2019.06 [27~31] '휴전선 / 우포늪 왓새 / 주울온천행'
[고전소설] 2022.09 [11~15] '박씨전 / 조보'
[현대소설] 2018.06 [39~41] '큰 산'

Day 6 _ 058P

[고전소설] 2025.09 [32~34] '풍파에 일렁이던~ / 심의산 서너 바퀴~ / 호아곡'
[현대소설+극문학] 2022.09 [22~27] '갯마을'
[고전소설] 2020.06 [23~26] '조웅전'

Day 7 _ 066P

[현대시+수필] 2025.11 [22~27] '배를 밀며 / 혼자 가는 먼 집 /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현대소설] 2021.09 [16~19] '고향'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Day 8 _ 074P

[현대소설] 2023.06 [28~31] '미스터 방'
[고전시가] 2017.09 [16~18] '방옹시여'
[현대시] 2019.11 [33~35] '출생기 /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Day 9 _ 080P

[현대소설] 2018.11 [43~45] '관촌수필'
[고전소설] 2024.11 [18~21] '김원전'
[고전시가+수필] 2021.09 [38~42] '만흥 / 우언'

Day 10 _ 086P

[현대시] 2022.09 [28~31] '종가 / 노래와 이야기'
[현대소설] 2017.06 [39~42] '삼대'
[고전소설+극문학] 2021.06 [41~45] '전우치전 / 전우치'

Day 11 _ 094P

[고전시가] 2023.09 [32~34] '어부단가 / 소유정가'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 나무'
[고전소설] 2025.09 [18~21] '광한루기'

Day 12 _ 100P

[고전시가+수필] 2021.12 [38~42] '사미인곡 / 창 밖의 워석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고전소설] 2019.06 [39~42] '옹고집전'
[현대소설] 2022.11 [24~27]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Day 13 _ 108P

[현대시] 2025.06 [31~34] '청산행 /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고전시가+수필] 2018.06 [42~45] '오륜가 / 차마설'
[고전소설] 2020.11 [33~36] '유씨삼대록'

Day 14 _ 114P

[고전시가] 2019.11 [43~45] '일동장유가'
[고전소설] 2024.06 [18~21] '상사동기'
[현대소설] 2022.06 [18~21] '무사와 악사'

Day 15 _ 121P

[현대시+수필] 2024.09 [22~27] '월훈 / 연 1 / 문의당기'

[현대소설] 2021.06 [34~37]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고전소설] 2017.09 [40~45]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Day 16 _ 130P

[고전시가] 2022예시 [22~25] '개와 관련된 시조'

[현대시] 2020.06 [43~45] '추일서정 / 하늘과 돌멩이'

[현대소설] 2025.06 [27~30] '아버지의 땅'

Day 17 _ 136P

[고전소설] 2018.11 [23~26] '사씨남정기'

[고전시가+수필] 2023.06 [22~27] '사시가 / 자도사 / 그 시절 우리들의 집'

[현대시] 2020.11 [43~45] '바람이 불어 / 새'

Day 18 _ 144P

[고전시가+현대시] 2019.09 [16~20]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고전소설] 2023.06 [18~21] '소현성록'

Day 19 _ 150P

[고전시가] 2024.11 [32~34] '일동장유가 / 화암구곡'

[고전소설] 2023.11 [18~21] '최척전'

[현대소설+극문학] 2019.11 [21~26] '천변풍경 / 오발탄'

지문 목차 _ Part 2

Day 20 _ 160P

[현대시] 2020.09 [35~37] '청명 / 초록 바람의 전언'
[현대소설] 2024.06 [27~30] '무성격자'
[고전소설+고전시가] 2018.09 [33~37] '춘향전 / 춘향이별가'

Day 21 _ 167P

[현대시+수필] 2023.09 [22~27] '별-금강산시 3 / 길 / 편지'
[고전시가] 2017.06 [25~27] '동동 / 가시리'
[현대소설] 2020.06 [16~18] '토지'

Day 22 _ 174P

[고전소설] 2022.06 [28~31] '채봉감별곡'
[현대소설] 2019.06 [43~45] '한계령'
[고전시가] 2020.09 [16~20] '상춘곡 / 고산구곡가'

Day 23 _ 180P

[현대시] 2017.06 [34~38] '향현 / 우리가 물이 되어 / 눈'
[현대소설] 2023.11 [27~30] '쓰러지는 빛'
[고전시가+수필] 2020.11 [21~25] '월선현십육경가 / 어촌가'

Day 24 _ 188P

[고전소설] 2024.09 [18~21] '숙영낭자전'
[현대소설] 2022예시 [26~29] '무정'
[현대시] 2018.06 [26~29] '고풍 의상 / 결빙의 아버지'

Day 25 _ 196P

[고전시가] 2022.11 [32~34] '탄궁가 / 농가'
[고전소설] 2021.09 [31~33] '심청전'
[현대시] 2018.09 [20~22] '플라타너스 / 달'

Day 26 _ 202P

[현대소설] 2025.11 [28~31]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현대시] 2021.12 [43~45] '그리움 /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고전소설] 2022.11 [28~31] '박태보전'

Day 27 _ 208P

[고전시가+수필] 2020.06 [32~36] '유원십이곡 / 조용'
[고전소설] 2018.06 [35~38] '적성대전'
[현대시] 2021.09 [43~45] '사령 /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Day 28 _ 216P

[고전소설] 2022.09 [18~21] '배비장전'
[현대소설] 2024.09 [28~31] '원미동 시인'
[고전시가+수필] 2025.06 [22~26] '우부가 / 타농설'

Day 29 _ 223P

[고전시가+수필] 2023.11 [22~26] '도산십이곡 / 지수정가 / 겸재의 빛'
[현대소설] 2019.09 [42~45] '비 오는 길'
[현대시] 2022.06 [32~34] '연륜 / 대장간의 유혹'

Day 30 _ 230P

[고전소설] 2025.06 [18~21] '이대봉전'
[고전시가] 2022.09 [32~34] '규원가 / 재 위에 우뚝 선~'
[현대소설] 2021.12 [22~25] '사막을 건너는 법'

Day 31 _ 236P

[현대시] 2018.11 [20~22]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고전시가] 2021.06 [38~40] '관동별곡'
[고전소설+현대소설] 2017.11 [21~26] '박씨전 / 시장과 전장'

Day 32 _ 244P

[현대시] 2022예시 [1~4] '수라 / 신의 방'
[고전소설] 2023.09 [18~21] '정수정전'
[고전시가+수필] 2024.06 [22~26] '한거십팔곡 / 기취서행'

Day 33 _ 251P

[고전소설] 2025.11 [18~21] '정을선전'
[현대소설] 2020.11 [30~32] '자전거 도둑'
[현대시] 2023.06 [32~34] '향아 / 전문가'

Day 34 _ 258P

[고전시가] 2019.06 [32~34] '서경별곡 / 만분가'
[현대시+수필] 2024.11 [22~27] '문 / 가자가 담을 넘을 때 / 잊음을 논함'
[현대소설] 2025.09 [28~31] '날개 또는 수갑'

Day 35 _ 266P

[고전소설] 2019.11 [36~38] '임장군전'
[고전시가] 2017.11 [43~45] '연행가'
[현대시] 2021.06 [22~24] '산상의 노래 / 나무의 수사학 1'

Day 36 _ 272P

[고전시가] 2024.09 [32~34] '성산별곡 /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극문학] 2019.09 [39~41] '공동 경비 구역 JSA'
[현대시+수필] 2025.09 [22~27]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 / 이문원노종기'

Day 37 _ 279P

[고전시가+수필] 2018.11 [33~37] '비가 / 풍란'
[현대소설] 2024.11 [28~31] '골목 안'
[현대시+극문학] 2017.11 [27~32]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연도별 기준 목차

이 교재의 구성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연도별 기준 목차'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 제시된 순서대로 푸시면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고전시가] 2017.06 [25~27] '동동 / 가시리'	170P
[현대시] 2017.06 [34~38] '향현 / 우리가 물이 되어 / 눈'	180P
[현대소설] 2017.06 [39~42] '삼대'	089P
[고전소설] 2017.06 [43~45] '최척전'	046P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고전시가] 2017.09 [16~18] '방옹시여'	076P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 나무'	096P
[극문학+현대소설] 2017.09 [21~24] '독 짓는 늙은이'	034P
[고전소설] 2017.09 [40~45]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126P

2017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2점>

[고전소설+현대소설] 2017.11 [21~26] '박씨전 / 시장과 전장'	053P
[현대시+극문학] 2017.11 [27~32]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284P
[고전시가] 2017.11 [43~45] '연행가'	268P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89점>

[현대시] 2018.06 [26~29] '고풍 의상 / 결빙의 아버지'	194P
[고전소설] 2018.06 [35~38] '적성의전'	212P
[현대소설] 2018.06 [39~41] '큰 산'	056P
[고전시가+수필] 2018.06 [42~45] '오륜가 / 차마설'	110P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3점>

[현대시] 2018.09 [20~22] '플라타너스 / 달'	200P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146P
[고전소설+고전시가] 2018.09 [33~37] '춘향전 / 춘향이별가'	164P
[현대소설] 2018.09 [43~45] '눈이 오면'	031P

2018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4점>

[현대시] 2018.11 [20~22]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236P
[고전소설] 2018.11 [23~26] '사씨남정기'	137P
[고전시가+수필] 2018.11 [33~37] '비가 / 풍란'	279P
[현대소설] 2018.11 [43~45] '관촌수필'	080P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1점>

[현대시+수필] 2019.06 [27~31] '휴전선 / 우포늪 왓새 / 주을온천행'	050P
[고전시가] 2019.06 [32~34] '서경별곡 / 만분가'	258P
[고전소설] 2019.06 [39~42] '옹고집전'	104P
[현대소설] 2019.06 [43~45] '한계령'	176P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7점>

[고전시가+현대시] 2019.09 [16~20]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144P
[고전소설] 2019.09 [26~28] '홍길동전'	039P
[극문학] 2019.09 [39~41] '공동 경비 구역 JSA'	275P
[현대소설] 2019.09 [42~45] '비 오는 길'	227P

2019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84점>

[현대소설+극문학] 2019.11 [21~26] '천변풍경 / 오발탄'	154P
[현대시] 2019.11 [33~35] '출생기 /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078P
[고전소설] 2019.11 [36~38] '임장군전'	266P
[고전시가] 2019.11 [43~45] '일동장유가'	114P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87점>

[현대소설] 2020.06 [16~18] '토지'	172P
[고전소설] 2020.06 [23~26] '조웅전'	064P
[고전시가+수필] 2020.06 [32~36] '유원십이곡 / 조용'	208P
[현대시] 2020.06 [43~45] '추일서정 / 하늘과 돌맹이'	132P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고전시가] 2020.09 [16~20] '상춘곡 / 고산구곡가'	178P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073P
[현대시] 2020.09 [35~37] '청명 / 초록 바람의 전언'	160P
[현대소설] 2020.09 [42~45] '자서전들 쓰십시오'	024P

2020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1점>

[고전시가+수필] 2020.11 [21~25] '월선헌십육경가 / 어촌기'	185P
[현대소설] 2020.11 [30~32] '자전거 도둑'	254P
[고전소설] 2020.11 [33~36] '유씨삼대록'	113P
[현대시] 2020.11 [43~45] '바람이 불어 / 새'	142P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11 [18~23]

(해설편 Part 1 p.012)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A]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洞里(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이육사, 「초가」-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김관식, 「거산호 2」-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낱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들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낱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造化(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낱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이육, 「담초(談艸)」-

* 요항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02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윤패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03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04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줄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05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좁이 처’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해설편 Part 1 p.022)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깐깐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든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델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욕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 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 말재간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 만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라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확 질리고 말았다.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윤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윤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윤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으나.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그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덴 귀가 짝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유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㉔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채권 삽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아—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오아—”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제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이정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0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08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㉓~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㉔: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㉕: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㉖: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다투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㉞: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09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서전들 쓰십시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 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다.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억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다.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다.

10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옥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옥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해설편 Part 1 p.028)

(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살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畬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쏘나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맡아 무니 석송*인들 당할쏘나

-작자 미상, 「갑민가」-

* 돈피 : 담비 가죽.

* 갑민 : 갑산의 백성.

* 석송 :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엎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래끼 :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서주 : 서쪽 밭.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1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군.
-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해설편 Part 1 p.033)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숙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 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문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뱀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자상정입니다. 옛날에 어

뎌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작자 미상, 「최고운전」-

1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 ②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이다.
- ⑤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지만,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 ① 아이가 헌 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②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물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③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해설	<p>일단 <보기>에서 이 작품은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답이 되어야 하는 선지죠?</p> <p>나아가 ㉠과 같은 행동을 한 '길동'의 의도는 자신의 재주를 보여 주기 위해서였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의 근거'라는 측면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p>
----	---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다고 했지.
해설	<p><보기>에 따르면 '길동'이 왕에게 직접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모습은 신분 상승에 대한 '독자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p>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뒷일은 어찌 되고? 다음 권을 불지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다고 했지.
해설	<p>역시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p>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③ **영웅소설 클리셰** : 모든 영웅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클리셰를 알고 있다면 지문 독해가 수월해질 거예요.

| 지문 내용 총정리 |

영웅소설 클리셰와 소설 독해의 기본 원칙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DAY 3 [31~34]

2024.06 [31~34] 현대시 '맹세 / 봄' ☆☆☆☆

<보기> 확인

[보기]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나아가 (가)와 (나)가 각각 '화자의 시선',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것까지 보너스로 챙기면 훌륭하겠죠? <보기>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으니, 최대한 다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나)와 관련된 <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탐구도 포함된다고 해요.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는 만큼, 두 개의 <보기>를 통해 그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붙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이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이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뿔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조지훈, 「맹세」-

지문 전체적으로 '임'을 찾는 모습, '해돋는 아침'과 같은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모습 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과 '이상 세계'에 대한 지향을 하는 과정에서 '울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오규원, 「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담벽’, ‘라일락’, ‘별’, ‘개의 똥’ 등 여러 ‘대상들’에게 주목하면서 ‘자유’를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어차피 선지를 판단하면서 알 수 있을 테니,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어떤 맥락인지만 확실하게 이해한 채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6%	8%	72%	6%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중략)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량과 선물을 지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어찌하리야’와 ‘지니라’라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슴이 뜨겁다거나 자량과 선물을 지니지 않는다는 등의 상황 인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정 엄청 하고 있네. 화자의 의지는 주제이고.
해설	(가)의 화자는 모든 것을 다 잃거나 잊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러한 날까지 ‘임’과 ‘이상 세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자의 의지’는 지문의 주제 그 자체이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의 특징 그 자체네.
해설	(나)에서는 ‘저기 저 ~’, ‘~하고 싶은 놈 ~하고’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쉼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이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양면성, 효용성은 주제랑 너무 어긋나지.

해설	(가)에서는 ‘싸늘한 바위’와 ‘뜨거운 가슴’, ‘어둠’과 ‘해돋는 아침’처럼 대비되는 시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바를 대비하는 것일 뿐,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죠? 앞뒤가 다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비되는 두 대상을 나타낸 것이니까요.
	나아가, (나)에서는 대상들의 여러 행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행위들은 모두 ‘자유’를 누리는 것을 상징할 뿐, 그 대상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한편,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대거나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는 건 (가)와 (나)의 주제를 고려할 때 너무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한 다음,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가)와 (나)에 대한 추가적인 독해를 진행한 뒤 이 선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종락)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불이다.

불은 자유다. 자 바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 되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선지에서 묻는 부분을 따라가면, 선지 내용 그대로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9%	8%	10%	9%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 근처 맥락을 독해하여 ‘아픈 가락’의 의미를 추출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화자는 ‘임’에게 줄 만한 ‘자랑’도, ‘선물’도 없다고 해요. 오직 줄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인데, 그 피리의 가락이 ‘아픈 가락’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가 ‘임’에게 전해져 ‘임’이 돌아오고 ‘이상 세계’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내용을 정답 선지로 골라 봅시다.

- ①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랑도 없다며.
해설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서 ‘임’에 줄 수 있는 ‘자랑’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아픈 가락’이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겠죠.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독해한 결과 그대로네.
해설	‘아픈 가락’의 근처 맥락을 독해한 결과 그대로 선지화된 모습입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DAY 6 [70~73]

2020.06 [23~26] 고전소설 '조웅전' ☆☆☆

〈보기〉 확인

[보기]

「조웅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영웅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꿈 모티프'를 이용한 지문이네요.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달하며 주인공에게 영웅의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이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독해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확인해 봅시다. 송나라의 영웅, '조웅'이 '태자'를 구해 '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태자'를 모실 만큼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고 합니다. 역시 '서번국'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웅'이 맞서 싸워야 하는 나라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웅이 위기에 빠진 모습이에요. 이 위기는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르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뻥뻥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전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충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라는 곳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지문의 흐름상 여기서의 '원수'는 당연히 '조웅'을 의미하겠죠? 호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아무튼 그곳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비'가 '조웅'을 '한 곳'에 데려갑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꿈' 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 〉 표시된 배경 묘사를 참고하면, 그곳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초월적 존재'들이 사는 곳이니 그럴겠죠.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꿈 속에서 ‘조웅’은 ‘궁궐 위’를 봅니다. 어떤 ‘노인’의 아래에서 ‘큰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여기서 ‘노인’의 외양이 묘사된 것을 토대로, 아주 높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자기 공적을 말하며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을 보면 즐거운 잔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배경 묘사를 기반으로 자연스레 흥겨운 잔치의 분위기를 느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들은 갑자기 ‘송나라’와 ‘조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웅’이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서번 적’을 보자마자 [앞부분 줄거리]가 떠올라야겠죠?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웅’은 ‘함곡’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초월적 존재’들이 알려 주는 모습입니다. 영웅인 ‘조웅’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구요.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알,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 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송나라 문제’라는 사람이 들어옵니

다. ‘문제’가 말하길, ‘조웅’이 곧 큰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도사’를 찾아 ‘조웅’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요. 전형적으로 꿈 속의 초월적 존재들이 영웅의 조력자가 되어 주는 모습이에요.

‘조웅’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을 얻었으니, 영웅답게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죠?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B]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나니, ‘조웅’은 당연히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찢찢한 와중에 계획대로 ‘함곡’에 도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 > 표시한 배경 묘사를 보니, 너무나 불길하고 우울한 풍경입니다. 꿈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웅’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것 같죠?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문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작자 미상, 「조웅전」-

그 뒤의 내용은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클리셰를 따르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문제’가 이야기했던 ‘도사’가 ‘노옹’을 보내 ‘조웅’을 돕는 모습이에요. 밑줄 친 여러 심리들의 근거는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겠죠?

아무튼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을 얻은 ‘조웅’은 ‘위홍창’을 시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문제를 해결했음에 ‘기뻐하며’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모습이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85%	5%	2%

70 읽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송 문제가 서번 적의 간계에 왜 빠져.
해설	‘송 문제’가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한 이유는 ‘도사에게 조웅을 구해주라고 전하느라’였습니다. ‘송 문제’는 서번 적과 만난 적도 없어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질 뻔한 사람은 주인공인 ‘조웅’이죠. 결국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핵심입니다.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함곡으로 가는 길이었지.
해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함곡’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함곡’은 ‘조웅’의 위기를 만드는 주요 공간이었으니까요.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웅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런 대사가 있었나? 시간을 넘겼는데도 만나서 즐겁다고 했었네.
해설	‘노옹’의 대사를 꼼꼼하게 읽지 않아 기억을 못하더라도, 돌아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적어도 ‘노옹’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확인해보니,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라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네요.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송나라 아직 안 망했는데?

해설	일단 송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홍창'의 어떠한 행위가 '송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네요. 나아가, '위홍창'은 '조웅'의 옆에 있다가 명을 받고 '함곡'으로 들어가 '선봉'을 데려 오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틀린 선지네요.
----	---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해설	여러 사람이 뜰로 내려와서 영접하고 맞이하는 순간은 '송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황금관을 쓴 노인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2%	5%	3%	87%

7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이제는 주관식으로 답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는 '조웅'이 경험한 꿈 속 공간의 신비로움을, [B]는 '조웅'의 불길한 미래를 예견하는 '함곡'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둘 다 '배경 묘사'라는 포인트를 활용하고 있었기에 미리 주목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조웅의 기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
해설	꿈 속 공간이 '광활'하다고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러낸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죠. 그저 신비로운 꿈 속 공간일 뿐입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지.

해설	'시간의 흐름'은 허용이 되는데,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떠오름) '낙관적 태도'를 허용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B] 앞에서 '조웅'은 '염려'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	---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에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이 어땠어.
해설	[A]는 '나비'를 따라 꿈 속으로 간다는 점에서 '낭만적'이고 '환상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B]에서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이 드러난다고 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네요.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에서 도대체 무슨 긴장감이 강조되냐.
해설	[A]는 '공간적 변화'를 드러내는 부분이지만, '긴장감'이라는 분위기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배경 묘사를 통해 '신비스러움'이라는 분위기를 나타낼 뿐이죠? 나아가 [B]에서 '계절적 상황'을 허용할 만한 내용을 찾기도 어렵네요.

| 생각 심화 |

물론 '두견새'는 철새라서 특정 계절에만 울기 때문에, [B]에 계절적 상황이 드러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다른 방식으로 지워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에요.

- ⑤ [A]와 ㉠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왜 8회인지 모르겠는데?
해설	애초에 [A]와 ㉠을 통해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이 작품이 왜 8회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허용을 하고 싶어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 가볍게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지문 내용 총정리 |

다소 낯선 형식으로 출제되어 당황할 수는 있지만, 난이도 자체는 매우 낮은 지문이었습니다. 수능날에도 낯선 형식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공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떠올리면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DAY 12 [131~135]

2021.12 [38~42] 고전시가+수필 '사미인곡 / 창 밖기 워석
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보기> 확인

[보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천상'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나고, 화자는 '지상의 시간'을 적절히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시간 표현'이 중요하게 다뤄지겠다는 것 정도를 얻을 수 있겠네요.

[보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나)와 (다)는 '고요함'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라는 개념의 정의는 정확하게 체크해주셔야겠지요? 특히 (다)에 대한 설명에서는 '내적 고요 추구'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꼼꼼하게 챙기고 나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이 몸 태어날 때 님을 좇아 태어났으니

훈칭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 한생 연분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못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 이 마음과 이 사랑은 견줄 데가 전혀 없다

평생(平生)에 원(願)하오디 혼디 네자 하얏더니

→ 평생에 원하니 한 데 살자 했더니

늡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 늡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랐더니

→ 엇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 그 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 올 때 빗은 머리 헛틀어진 지도 삼년이구나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 연지분 있지만은 누굴 위해 곱게 할까

못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짓느니 한숨이고 디느니(?) 눈물이다

인칭(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무심(無心)하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느고야

→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염낭(炎涼)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 염낭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 듣거니 보거니 느릴 일도 많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 동풍이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다

곳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이나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티 빗치니

→ 황혼의 달이 좇아와 벼 말에 비치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 저 매화 꺾어 내여 님 계신 데 보내고자 한다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정철, 「사미인곡」-

필수 고전시가 중의 하나인 ‘사미인곡’입니다. ‘삼기다’, ‘괴다’, ‘노여’, ‘~할 제’ 등의 어휘의 의미와 ‘동풍’, ‘적설’, ‘매화’ 등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의 쓰임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읽어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님 보고싶어요!’라고 하는 작품이니깐요. 이 정도의 주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 생각 심화 |

사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사미인곡이 등장한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같은 작가(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되었거든요. 한 해에 같은 작가가 두 번 이상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평가원은 이를 비웃듯이 바로 출제해버린 모습입니다. 사실 이는 2013학년도에도 벌어졌던 일이에요. 당시 6월 모의평가에 사미인곡, 수능 때 성산별곡이 나오면서 ‘정철’이라는 작가가 두 번이나 등장했었죠. (그리고보니 또 정철이네요.) 선부른 작품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에 기대지 말고 본질적인 ‘실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나아가, 2021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고전시가 세 작품(관동별곡, 만흥, 사미인곡) 모두 ‘필수 고전시가’에서 출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심지어 ‘만흥’과 ‘사미인곡’은 각주도 주지 않고 출제했어요. 이처럼 필수적인 고전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친절하게 출제할 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창 밧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 창 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거 일어나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 혜란 혜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나

어즈버 유한(有限)하 간장(肝腸)이 다 그칠가 흐노라

→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신흥-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되었던 ‘신흥’의 ‘방옹시여’ 중 일부입니다. 워낙 유명한 클리셰를 가진 작품이에요. ‘착각’ 모티프에 해당하는데, ‘님’을 기다리다가 다른 물체를 님으로 착각했다는 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죠?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 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글쓰이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꽤나 소란스러웠지만 초당을 만들어서 조용하게 지내려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더웠다고 해요. 그런데 글쓰이는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말을 ‘당호’로 정해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더운 것보다 조용한 게 더 중요했나봐요.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글쓰이는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 중 ‘마음의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적 고요’보다는 ‘내적 고요’를 중시하는 모습이에요. 당호에 나타난 ‘고요함’은 내적 고요함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다 이사했고, 몇 번 찾아가봤다고 합니다. 그 집의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네요. 꽤 아름답게 묘사되는 모습이지요?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살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립다’는 반응만 정확하게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임원 : 산림.

이 집에 살던 과거가 그리지만,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새 집에 같은 이름을 지어 ‘내적 고요’를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과 더불어, <보기>에서 이야기한 ‘내적 고요 추구’라는 주제가 잘 드러난 작품이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10%	6%	76%

1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입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 모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어즈버 유한(有限)흔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망이 어디 있어.
해설	‘노여’는 ‘전혀’라는 뜻이고, ‘다’는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맥락상 ‘원망’이라는 엄청난 반응을 허용할 근거가 없어요.

- ② (가)의 ‘호노고야’와 (나)의 ‘호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무심(無心)흔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노고야

어즈버 유한(有限)흔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지를 허용하기는 어렵겠는데?
해설	‘호노고야’와 ‘호노라’는 모두 ‘~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반응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곳득 냉담(冷淡)흔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혜란에는 의인화도, 동일시도 없는데?
해설	‘매화’는 봄이 되자 피어난 것으로, 화자가 님에게 보내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화자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로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보고’라는 표현을 통해 의인화도 되어 있구요. 하지만 ‘혜란’은 화자의 착각을 유발한 ‘낙엽’이 있는 곳의 꽃일 뿐입니다. 의인화가 쓰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시’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겠죠.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곳득 냉담(冷淡)흔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가움은 주제랑 너무 어긋나네.
해설	애초에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님과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가움’을 허용할 수가 없겠죠. 두 ‘므스 일고’는 각각 ‘암향, 낙엽’이라는, 화자가 기다리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확실하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창 밧긔 위석버석 님이신가 내려 보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 그 자체네.
해설	‘님이신가’라는 말 자체가 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니, ‘간절함’은 자동으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근처 맥락을 봐도 모두 화자가 님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구요. 애초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이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선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2%	10%	18%	54%

1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훈싱 <u>연분</u> (緣分)이며 <u>하늘</u> 모를 일이런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하늘과 연결지었으면 천상의 시간 질서 허용되지.
해설	근처로 돌아가서 독해해보니, '연분'임을 '하늘'이 모르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를 따라가길 바란다는 건 허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천상'도 안다고 했으니까요. '연분'이 '사랑'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만 알아도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 ② '점어 잇고'와 '늡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나 <u>하나</u> <u>점어 잇고</u> 님 <u>하나</u> 날 괴시니 이 <u>ㅁ음</u> 이 <u>스랑</u> <u>견줄</u> 디 <u>노여</u> 업다 <u>평싱</u> (平生)애 <u>원</u> (願) <u>ㅎ요</u> 디 <u>훈디</u> <u>네자</u> <u>ㅎ얏</u> 더니 <u>늡거야</u> <u>ㅁ스</u> <u>일로</u> <u>외오</u> 두고 <u>그리</u> 논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젊고 늡으면 지상의 시간으로 넘어 온 거지.
해설	특이하게 1번 선지와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분명 화자는 님과의 '연분'이 '천상의 시간' 속에서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음'과 '늡음'이라는 '지상의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작품을 처음 보자마자 해낼 수 있는 수준의 해석이 아니에요.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선지에 대한 판단'이 수능 문학의 핵심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u>엇그제</u> 님을 뵈셔 <u>광한뎐</u> (廣寒殿)의 <u>올</u> 나더니 그 더디 <u>엇디</u> <u>ㅎ야</u> <u>하계</u> (下界)에 <u>느려</u> 오니 <u>올</u> 저기 비슨 머리 <u>헛</u> 틀언 디 <u>삼 년</u> 일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삼 년 전이 엇그제면 심리적으로 압축된 것이지.
해설	'광한전'에 올라 임과의 사랑을 나누던 때를 '엇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선 '올 때 빗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도 삼 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엇그제'→돌아옴→머리 형클어짐→삼 년지나 현재'라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따라서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한다는 건 허용이 되겠습니다. '삼 년 이상'이라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는 '엇그제'라는 짧은 시간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네요.

- ④ '인칭은 유한'과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u>인칭</u> (人生)은 <u>유한</u> (有限) <u>훈디</u> <u>시름</u> 도 <u>그지</u> 업다 <u>무심</u> (無心) <u>훈</u> <u>세월</u> (歲月)은 <u>믈</u> <u>흐르</u> 듯 <u>ㅎ느</u> 고야
--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한한 세월이 흐르면 남은 시간이 줄고 있는 것이지. 당연히 불안할 것이고.
해설	인생은 '유한'한데, 세월은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임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불안한 마음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무심한 세월이 빠르게 흘러 가는 것이 '지상의 시간적 질서'라고 부르는 건 전혀 무리가 없구요.

- ⑤ ‘염냉’이 ‘가느 듯 고터’ 온다는 인식에서, 임파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인생(人生)은 유한(有限)한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한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느고야
염냉(炎涼)이 썰을 아라 가느 듯 고터 오니
دت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밝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염냉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일 뿐,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된 건 아니지.
해설	역시 ‘독해’가 핵심이었습니다. ‘염냉’은 ‘물 흐르듯’ 하는 ‘무심한 세월’, ‘동풍’이 ‘적설’을 헤치는 것, ‘매화가 피는 것 등과 연관된 시어예요. 즉, 화자의 마음이 무색하게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염냉’이라는 단어가 ‘계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라는 표현과 함께 근처 시어들과의 관계를 ‘독해’했다면 ‘심리적 지연’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나아가, 애초에 ‘심리적 지연’이 맞는 선지가 되면 지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기에, 주제와 반대되는 선지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워도 좋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4%	6%	15%	17%	48%

133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창 밖의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창 안에서 낙엽 소리가 들릴 정도면 진짜 조용한 상태인 거지.
해설	창 안에서도 ‘혜란 혜경’의 ‘낙엽’ 소리가 들린다는 건, 주변이 아주 조용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는 ‘외적 고요’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조.

FAQ

- Q 어쨌든 낙엽 ‘소리’가 들리는 것이니까 ‘외적 고요’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A 전형적으로 선지에서 ‘시비’를 거는 형태의 생각입니다. 선지가 묻는 것은 ‘외적 고요’를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허용하려고 해야 하고, ‘원래라면 들리지 않을 낙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시비를 걸어서 헛갈릴 필요가 없어요!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창 밖의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님을 기다리느라 낙엽 소리에도 반응할 정도면 내적 고요에 있지 않다는 거지.
해설	(나)의 화자는 ‘낙엽’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채 임을 기다리느라 불안하기 때문이겠조. 이는 <보기>에서 말한 ‘내적 고요’의 반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 임원 : 산림.